



11월의 기도

1. 2026년도 이제 두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국 가신 총재 조용기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 DCEM이 선교활동에 더욱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DCEM을 통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2.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3. 해외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번민과 갈등 속에서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번민은, 구원을 받아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물질적인 세상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택하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요나에게 번민을 심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아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깊이 갈등하고 있던 중에 요나는 하나님의 낫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받고 영적 세계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속에 들려올 때 요나처럼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감정을 앞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에는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큰 역경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번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향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November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2026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 in TOKYO〉



조용기 목사 소천 5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9월 23일 복음의 불모지로 불리는 일본에서 '2026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일본은 태풍 두쥐안이 강타하며 항공과 철도가 결항되는 상황이었다. 이례적인 폭우에도 한국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온 목회자와 성도 2000여 명이 대극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행사는 조용기 목사가 1977년부터 펼쳐온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오키나와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 선교로 확장시키며 일본 복음화에 새 기쁨을 연 행사이다.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일본 복음화의 새로운 문을 여는 믿음의 축제가 된 이번 페스티벌은 DCEM이 주관, 순복음일본총회가 주최로 1부 음악제와 2부 축복성회 순으로 진행됐다.

성회장이었던 도쿄 신주쿠 문화센터 앞은 23일 이른 시간부터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페스티벌이 시작되자 눈을 감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이들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시울을 붉히는 참석자까지, 대강당은 시종 은혜로 가득했다.

첫 무대는 노구치 요시에의 파이프오르간 연주로 시작됐다. 신주쿠 문화센터에는 일본 최초의 카바에-콜형 대형 파이프오르간이 설

치돼 있어 웅장하고 풍성한 울림이 퍼져나갔다. 이어 신주쿠 살료교회 홀라탐이 찬송가에 맞춰 깃발을 사용해 울동하고 주조 그리스도 교회가 콰이어와 밴드 편성으로 찬양을 선보였다. 야마토 갈보리교회 소속 바이올리니스트 부부 유닛은 이중주로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믿음의 여정을 선율로 풀어냈다. 리바 이브 인터내셔널 처치는 국제 대학생 찬양팀이 '그레이트 어웨이크닝(Great Awakening)'을 부르며 일본 땅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국적을 초월한 이들의 무대는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강사로 나선 이영훈 목사는 이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면한 말씀을 통해 주 안에 설 때 일본이 복음화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야마토 갈보리교회 오오카와 쓰구미치 목사도 강단에 올라 '무엇을 해도 성공한다'(시 1: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내린 삶이야말로 참된 행통의 길임을 역설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순복음동경교회를 비롯해 야마토 갈보리교회, 가나자와 그리스도교회, 주조 그리스도교회, 일본 오픈바이블 교단 마치다 성서교회 등 일본 각지의 교회와 순복음일본총회가 함께했다. 시가끼 시계마



사 목사(순복음일본총회장)는 인사 말씀을 통해 "오늘의 찬양과 기도가 일본 선교의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권일두(국제사역국 담당)·고영웅(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김용준(순복음도봉교회) 목사, 김두영(순복음선교회 이사)장로, (사)영산글로벌미션포럼, 권사찬양대,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동아시아북한선교회 등 130여 명이 동행하며 일본 선교에 힘을 보탰다.

지저스 뮤직 페스티벌은 좀처럼 열리지 않던 일본인들 마음의 문을 찬양으로 열고 영적으로 갈급한 일본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일본 선교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감 사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21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됨을 기뻐하여 추석을 정하고 국가적으로 즐겨워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주 목요일을 국가적 감사절기로 삼아 온 국민이 잔치를 베풀어 기뻐합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모 형제 이웃 간에도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1. 사랑과 감사는 선물로 표현된다

사랑과 감사는 선물을 드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측량하실 때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요구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장작과 횃불을 들게 하고 난 다음 자기는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제물은 무엇으로 드립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가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오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눈을 맞춰주고 “얘야,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도 정직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외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외아들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 보니 진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증명되었다. 사랑이 증명되었다”라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선물을 줌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선물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재물을 찾거나 명예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를 물어 보십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겠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내용과 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염소새끼를 주셨으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흔하고 쓸모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6~700년 이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으나 그것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청산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널리 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추수 감사 절기를 꼭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큰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낸 두 렵돈의 현금처럼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야만 합니다. 감사와 사랑은 반드시 물질로 증명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입술로만 하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

예물보다 용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 5:23~26)”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서로 화목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좋은 의복을 사오는 것보다 오히려 형제간에 화목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 더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싫어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너 어디 두고보자’ 하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물고 찢고 싸우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주고 화목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송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예물을 드릴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열납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되게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서로 대화해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때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보다는 미리 화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를 하면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와 불화하여 심령으로 화해하지 않으면 내 양심에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심령은 고통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그럴때 우리의 예물도, 기도도, 찬송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 질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